
아름다운
이야기
80th



〈뉴욕 브로드웨이〉



이병도

프로필(이력)

·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2018~ 2월의 화실 대표 (어반스케치 클래스 운영)
· 2021~ 춘천시 평생학습관 [어반스케치] 출강
· 2021~ 김유정문학촌 [어반스케치] 출강
· 2021~ <춘천커피도시브랜딩위원회> 위원
· 2022~ 화천 간동문화센터 [어반스케치] 출강
(사)국립춘천박물관회 이사

춘천시 신동면 풍류길7 2층 2월의화실
gailplus1@gmail.com
인스타 id : @gailplus1

찾아가는 당회 10

동해시 산불피해지역 방문



특집 12

우리동네 환경정화,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



THE ARUMDAUN STORY

2022.7. VOL.80

어부의 눈 04
동부이야기 06
연재 [프랑스에서 온 편지] 08
찾아가는 당회 [동해시 산불피해지역 방문] 10
특집 [우리동네 환경정화,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 12
연재 [신약성경 속 지역 알아보기] 14
동부이야기 16
포토에세이 17
동부이야기 18
교육부 [미래와 비전을 선포하는 초등부 친구들,,] 21
신앙에세이[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2
인사드립니다 [오민준 목사] 24
인사드립니다 [정 훈 목사] 26
이사오세 사행시 28
연재[라떼파파] 30
추천도서 32
동부소식 34



예배와 환경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던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가 최근 경기도 파주까지 북상하였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서식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젠 한반도 전역이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강원도 홍천이 41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기온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인도의 한낮기온이 50도를 육박하였습니다. 이는 120년 만에 최고의 더위라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심각한 탈수에 추락해 날개가 부러질 정도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그 상황이 심각해져 '기후재앙'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는 1850년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높아졌고 해수면도 1901년보다 0.2m 상승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 안에 지구온도가 5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극지방과 히말라야 빙하가 녹게 되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해안가의 도시들과 섬들은 사라집니다. 결국 지구의 종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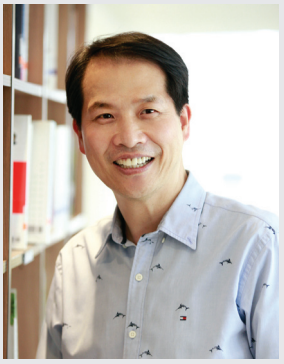
지구의 온도가 오르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바다의 역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는 산소의 70%를 공급하고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합니다. 육지와 대기 사이의 열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바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지와 수목이 메말라, 연중 어느 때라도 산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중으로 더 많이 증발된 수증기는 폭우로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해 10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지역을 옮겨 다니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의 문제는 모른 척 외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자연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경작하다", "지키다"입니다. "경작하다"(아바드)는 '보살피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민수기 18장 23절에 '봉사하며'로 사용됩니다. 성전에서 제사와 관계된 일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키다"(샤마르)는 민수기 3장 7절 '시무하며'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제사장이 제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 즉 시무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아바드', '샤마르' 두 단어는 성전 제사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돌보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창1:7)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마 대기층 위 눈에 보이지 않는 짙은 수증기층이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 전 지구를 반투명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주위를 수증기층으로 막을 만들어 온실화 함으로써,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래스카 및 시베리아 빙하 속에서 발견된 '맘모스'의 화석은 오늘날 한대지방이 한 때 기온이 따뜻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예가 되어집니다. 그뿐인가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은 912세나 됩니다. 오래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의 기능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고 생명 있는 것들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져 가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창6:9)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김과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자입니다.

환경주일을 전후로 춘천 의암호 주변에서 성도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과대포장 제품 소비줄이기, 재활용 가능한 제품 구매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냉·난방기 적정 온도 유지하기, 일회용 컵 사용 안하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분리수거하기 등 작은 실천이 모이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 가야합니다.



글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위임목사
서울장신대 겸임교수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2019년 시온 찬양대 지휘를 시작했던 그 해를 기억해본다. 잘 해낼 것 같은 자신감.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다듬고 만들어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나를 만들어 가셨다는것에...

신규 음악교사 발령 3년차였던, 2006년 나는 철원의 김화여자중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다. 김화여자중학교 고운소리합창단. 강원도 아니 전국과 세계대회에서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유명한 합창단이 바로 이 학교에 있었고, 음악교사인 나는 당연히 이 합창단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 합창으로 워낙 유명한 학교였던 차라, 솔직히 부담이 되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배울 것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음악을 전공하였지만, 합창 지도는 초보였던 나의 걱정과는 달리 첫날 아이들의 합창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이런 소리가 좋은 소리구나. 합창으로 이런 소리를 만들어 내는구나. 40여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매일 아침 아주 유명한 어린이 합창단 CD를 듣는 기분이 들게 할 정도였다. 학생들이 악보에 적어 놓은 전임 음악 교사의 지도 내용은 나에게도 유용하여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좋은 합창 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부임한 첫 해는 내가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합창 소리를 통해 내가 매일 지도 받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적힌 내용대로 부르는 노래 소리가 어떻게 달리 들리고, 표현되는지 알게 되니, 더 연구하고 싶어졌고 그러한 테크닉과 더불어 합창곡 레파토리 연구 또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준비했던 기억이 난다. 이를 통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면서 강원도 합창대회는 매번 최고의 성적을 나타내는터라 찬조출연만 할 정도였고, 각종 전국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독일 · 프랑스 초청 공연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합창에 초보였던 나를 합창에 입문하게 하시고, 깨달아 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루게 하셨다. 특히 좋은 합창 소리를 알게 된 것이 더 없이 값진 경험이었던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같은 철원 지역내 여성 합창단 지휘 제의가 들어왔는데,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태봉합창단이었다. 여성 아마추어 합창단이었는데, 소리는 하나 되지 않았고, 단원들 간의 불화도 있어 맡아서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그동안 정립된 좋은 합창 소리에 대한 생각과 레파토리들을 잘 만들어 다듬어간다면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의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각각의 소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고 들으며 내 소리가 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다. 이에 점점 좋은 합창 소리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며 모두들 한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었다. 결과는 각종 전국대회 수상과 더불어 다양한 음악회에 초청되는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포천 모 교회 임직식에 초대되어 공연했을 때, 위임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며.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했던 사람들 같이, 솔직히 나도 철원의 아마추어 여성 합창단이라길래 뭐 얼마나 잘하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놀랐다'며. 칭찬하셨던 일화가 기억이 난다. 철원 태봉합창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큰 변화를 보여준 합창단이었고,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나의 수고가 더해져 열심히 노력해준 단원들과 하나되어 좋은 결과를 보여준 합창단이었다. 철원에서의 9년 교직생활을 보내고, 춘천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태봉합창단 지휘도 내려놓게 되었다. 부족하나마 열심을 내어 수고해 준 노력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춘천으로 부임하고 얼마 뒤 강원교사합창단 지휘 권유를 받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동안 내가 지휘한 합창단은 모두 여성합창단이기에 남성 파트를 지도하고 여성과 조화시키는 방법들을 경험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것 같다. 또한 많은 연주회를 기획하게 하시고, 전국 단위의 음악회를 주최하게 하시는 등 합창 지휘를 하며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춘천으로 발령받은 학교는 음악중점 학교인 봉의 고등학교였다. 합창으로 다져진 나의 실력으로 이곳에서도 아이들과 합창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나의 예상과는 달리, 내게 주어진 일은 오케스트라 지휘였다. 음악중점학교. 예술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다. 악기 전공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개개인의 실력들이 출중했다. 부담감은 있었지만 이 또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지도했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출강하는 외부강사들로부터 지휘 테크닉도 익히고, 악기의 특징들 하나하나 공부하고 배워가며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레파토리의 곡들을 지휘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 특성들과 지도법을 깨닫게 하셨다. 오케스트라 지휘와 지도의 경험은 지금 현재 시온 오케스트라를 섬기며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간증을 부탁받고 준비하면서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니 부족한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런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다듬어 가셨다는 것에 더 없이 감사하게 되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

-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브살렐 (출 31:1-4)- 과 같이 쓰임 받고 싶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섬기고 싶은 분들이 즐겁게 나와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와 모든 동부교회 찬양대가 되길 소망한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글 황승환 안수집사



청년도전기

프랑스에서 온 편지

저는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공부를 해오던 중 유학에 대한 열망이 생겨 프랑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다른 나라들도 있었지만, 여러 이끌림에 의해 이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위해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유학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던 저의 유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순간 설렘과 기대 그리고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항공을 타고 오면서, 저도 모르게 승무원들의 제스쳐와 말투, 행동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기내식과 간식들을 먹으면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관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저에게 첫 경험이자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갈 도시 '푸아티에'를 가기 위해 바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한가득 들고 푸아티에에 부랴부랴 도착하니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푸아티에에 계신 선교사님 부부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대접받고 숙소까지 잘 도착하였습니다. 어학 공부를 위해 푸아티에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4개월간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프랑스 대학교의 대학 생활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의 식생활은 한국과 정말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랑스는 전식과 메인요리 그리고 디저트를 꼭 챙겨먹는 편입니다. 학교식당을 예로들면, 먼저 샐러드와 같은 가벼운 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요리 그리고 빵이나 요거트, 과일등의 디저트가 항상 준비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간단한 샐러드에도 쿠키나 과자와 같은 디저트들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저녁을 먹기전에 'Apéritif'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뜻은 '식전주'라는 뜻이지만, 대체적으로 식사를 기다리면서 가벼운 식전주와 빵, 스낵 등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을 가진 뒤 함께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와인과 함께 바게뜨와 치즈, 샐러드를 시작으로 메인요리 그리고 디저트까지 차례로 식사순서를 가집니다. 실제로 저는 프랑스 한 가정에 초대받아서 함께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냈는데, 저녁 5시쯤 Apéritif를 시작해서 식사가 끝나기 까지 대략 3,4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푸아티에에서 4개월간 공부하면서 2번의 바캉스를 보르도에서 보냈습니다. 와인으로 유명한 도시인 보르도는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있고 남쪽으로 스페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친한 프랑스 친구 가족의 초대로 보르도에서 제대로 된 바캉스를 보낼 수 있

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바캉스가 정말 자주 있는 편이고 또, 바캉스를 제대로 즐깁니다. 저는 프랑스 친구 가족과 함께 해변으로 피크닉을 가고 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르도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진심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프랑스의 바캉스를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또 다시 어학공부를 하기 위해 파리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 후 파리를 4개월 만에 온 것입니다. 이 곳에서 또다른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예술인들이 활동을 많이하던 도시가 바로 이 파리입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명소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왜 이곳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을하고 지내왔는지 한 번에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자연과 더불어 이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에 따라 날씨에 따라 똑같은 풍경은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리상 유럽에서 예술과 문화가 발달하기 정말 좋은 곳에 위치 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가 있으며, 위로는 영국이 있습니다. 즉, 예술과 문화의 교류가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되어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명 관광 도시인 만큼 그리고 대도시인 만큼 때로는 많은 인파로 인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으로 일,집,일,집 이라고 하듯이 파리에서의 생활을 프랑스 사람들은 'Métro-Boulot-Dodo'(전철-일-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친 하루에도 불구하고 파리 전철 6호선을 타고 센느강과 에펠탑을 지나 갈 때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된 초보 유학생이지만 계속해서 어학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조금씩 프랑스를 더 깊이 이해하고 느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악학교를 입학하는 것과 오페라 극장에 오디션을 보는 것 등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문화와 풍경, 음식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왠지 모르게 처음 올 때부터 마치 이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처럼 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정과 은행 업무, 병원 등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이 느리지만,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프랑스는 이것들 조차도 순응하게 만듭니다. 프랑스인들의 이미지는 다소 냉소적이고 차갑다고 얘기들 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 다정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프랑스에는 'Ça dépend'(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이 곳! 그렇지만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 곳! 이 곳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글 정주람 청년





“천국은 못봤지만 산불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동해시 산불피해지역 방문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이 바람이 세찼다. '양간지풍(襄杆之風 봄철에 강원도 양양군과 고성군(간성)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부는 바람)'이라고 불리는 국지적 강풍이 도로를 타고 몰아쳤다. 3월5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화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도 그 바람 때문이었다. 4월9일 아침 기상청은 '대형산불위험경보'를 발효했다. 도로가 강릉으로 접어들자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다. 불탄 자리에 간신히 살아남은 나무들이 푸른 싹을 틔워냈다.

춘천동부교회는 2014년 시작한 '찾아가는 당회'를 통해 교회 정책을 지역 곳곳으로 확장 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4월9일 김한호 위임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24명이 동해시를 방문했다. 김 위임목사님은 "산불이 지나간 지역은 남는 것이 없다. 우리가 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며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전달과 산불예방 캠페인, 지역 상품을 팔아주기 위해 동해시를 방문한다."고 했다. 동해시청 공무원들은 전쟁 중인 군인처럼 긴장을 풀지 못했다. 브리핑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지옥은 보았다. 온 산이 불타고 순식간에 집을 태워버린 불길을 보면서 '저게 지옥이구나' 싶었다."고 했다.

류민의 장로는 재난 영화로만 보던 산불현장을 실감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류 장로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산불관련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곳에 와보니 영화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다.

허남석 장로는 20여년 전 양구에서 산불을 경험했다.

"양구 도촌리 사격장 인근에 산불이 났다. 여기저기 땅속에 불발탄이 박혀있어 불이 나면 폭발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다. 그때 아찔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하다." 허씨는 소방대원들과 함께 밤새 진화 작업을 하는 주민들의 주먹밥을 갖고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이맘때 양구 사명산에 불이 났다. 그곳 갈대밭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으로 불이 번져 사람들이 불을 피해 한참을 갔었다. 아침에 보니 벼랑 끝이었다. 불이 더 왔다면 모두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불은 꺼지고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불이라고 생각만 해도 뜨거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

불길은 밤새도록 바람을 타고 산을 타고 올랐다. 시간이 갈수록 불기운은 더 성해져 바다까지 삼킬 듯 몰아치며 태워냈다. 수십 년을 자란 나무들이 불쏘시개처럼 타올랐다. 살아남을 것도 없었고 살려낼 것도 없는 불길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통곡했다. 물이 닿아도 순식간에 살아난 불이 다시 맹렬하게 타올라 남은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아우성치며 탔다. 동해시는 3월5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화한 산불로 공공시설과 사유지 등 792건의 피해와 2,735ha의 산림피해가 났다. 피해액 283억원, 복구지원비 568억원, 73가구에 이재민 52명.

김한호 위임목사는 "산불피해지역을 찾는 것은 한국교회가 전하는 섬김의 메시지다.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 건어물을 팔아주고 피해 식당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이재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심규언 시장은 "이번 동해안 산불로 동해시는 축구장 3,800개 면적의 피해가 났다. 이재민은 4월15일까지 입주시켜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라며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2차 피해를 낼 수 있다. 복구를 우선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시장은 "영농철이 시작되면 농촌일손 돕기와 종자공급, 이재민 구호용 양곡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동부교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당회원 일행은 묵호시장을 찾아 피해 상가의 건어물을 팔아주고 식당을 이용했다. 또 묵호항 인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돌아오는 길, 오는 길에 미처 보지 못했던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다. 푸름이 시작될 산야는 검게 그을린 채 계절을 잊고 있었다.

글 전경해 권사









우리동네 환경정화,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

춘천동부교회 의암호 수변 자연환경보호

춘천동부교회 교인 150여명이 6월4일 토요일 의암호 수변 2개권역 5개 구역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춘천동부교회는 해마다 세계환경을 날을 기념해 '의암호 수변 자연환경 보호 및 정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한호 위임목사는 "우리는 창조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지 못했다."며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은 크리스천의 사명이며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거리는 비교적 깨끗하지만 의암호 수변 눈에 띄지 않는 곳에는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많았다. 억새 군락지 사이로 오염된 폐비닐과 페트병이 떠다녔다. 수변이 오염되면 토양은 물론 호수에 사는 동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환경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문화협동조합 '더 그루



'가 환경보호 캠페인을 함께 했다. 행사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탄소중립 2050 실천하기' 20여 개의 문구와 계피 목걸이를 전달했다. 가정과 직장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과 에너지 절약 안내 문구가 적혀있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 한파 등으로 인류 안전과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2040년 아프리카 산악지역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도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기후 난민'에 포함되지 않으리란 확신은 없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파키스탄 북부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 홍수가 발생하고 인도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가 바뀌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난다. 환경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3도 오르면 아마존의 우림지대가 사막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뭄이 심해져 사람과 생물이 기근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지구의 평균온도가 1도 이상 상승했다. 예측불가능한 극한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춘천동부교인들의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실천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글 아름다운 이야기 편집부





신약성경 속 지역 알아보기 [예루살렘]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

"Nothing, Everything"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 살라딘은 '예루살렘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주인공 발리앙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나 모든 것인 도시라는 답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단 2개의 단어로 함축해서 말한 것이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 나온 이 3개의 종교는 모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성지로 여긴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원죄를 대속한 곳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동안 장사되었던 곳이며 유대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다윗 왕국의 수도이자 로마인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던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고 이슬람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다. 그렇기에 이 신성한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수세기에 걸쳐 피로 피를 씻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신약시대 예루살렘은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중심지였고 이들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다. 이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로 사도들이 회의를 하게 만들었다. 이 회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대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사도행전 15:20)고 편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기독교인들이 과거 유대인들처럼 과도하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무리되었다.

66년, 열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고 4년간의 전쟁 끝에 70년 로마 제국이 모든 유대지역을 점령하며 유대인들의 반란은 끝난다. 그리고 이 때,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점령되어 불탔고 헤로데스가 증축한 성전 또한 서쪽 담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괴되는데 이 때 남은 담장 일부는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 불리며 유대교의 성지가 된다.

60여년이 지난 132년, 바르 코크바라 불리는 유대인이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며 반란을 주도했고 이 반란 또한 135년에 완전히 진압된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는 재건된 예루살렘을 다시 파괴하고 이름 또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꾸었으며 과거 성전이 있던 자리에 제우스의 신전을 건설하는 등 철저한 헬레니즘 도시로 재건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200여년이 지난 325년이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던 도중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와 사흘 동안 장사되었던 무덤을 찾았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던 자리를 기념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오늘날의 성묘 교회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기존의 총대주교구가 설치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외에 새로 2곳의 도시에 총대주교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때,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총대주교구로 승격되었고 이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총대주교로 인정받고 펜타르키(Pentarchy)의 일원이 되어 기독교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기독교의 펜타르키. 오른쪽 아래 보라색 지역이 예루살렘 총대주교의 관할 지역이다.

기독교의 펜타르키. 오른쪽 아래 보라색 지역이 예루살렘 총대주교의 관할 지역이다.

그 후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기독교의 성지로 인정받던 예루살렘의 운명은 7세기가 되며 다시금 크게 요동친다. 첫 번째는 동로마 제국의 숙적인 사산 페르시아가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며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다.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사산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내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 시설들을 파괴했다. 이러한 페르시아인들의 파괴행위는 결국 동로마 황제 이라클리오스(610~641 재위)가 페르시아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성십자가를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오며 끝을 맺었지만 예루살렘의 수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슬람교가 발흥했고 이들은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던 동로마 제국과 사산 페르시아를 손쉽게 물리치며 레반트와 이집트를 점령했다. 이 때, 예루살렘도 이슬람 세력이 점령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 세력은 옛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모스크를 세웠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자 마지막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여겨지는 곳에 바위의 돔이라 불리는 성원을 세워 이 곳을 성지로 삼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약 400여 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1096년, 동로마 제국 황제 알렉시오스 1세(1081~1118 재위)의 요청을 받은 로마 교황 우르바노 2세(1088~1099 재위)는 십자군을 소집했고 이에 응한 서유럽의 영주들이 군대를 보내며 제1차 십자군이 1096년에 결성된다. 제1차 십자군은 1099년, 이슬람 세력에게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곳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운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국은 곧 이슬람 세력의 저항을 받게 되었고 결국 1187년, 이슬람의 지도자 살라딘에 의해 예루살렘은 다시금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기독교는 이후로도 예루살렘을 수복하고자 수차례의 십자군을 일으켰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만다.

20세기 초인 1920년,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오스만 투르크에게서 빼앗아 영국령 팔레스타인 식민지로 삼았고 이 시기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다수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하며 이 지역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 이스라엘이 된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제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과 함께 예루살렘 서부를 지배한다. 예루살렘 동부는 요르단이 지배했지만 이 지역 역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다.

글 오현우 청년





신앙간증 1문1답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증거입니다.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양성우 안수집사입니다. 우선 제가 2017년 5월에 갑자기 벌어진 건강상의 이유로 말이 어눌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여러 성도님들께 죄송함을 전하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생명을 구하였고 제 2의 인생을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2.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인격적긴 만난 계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당연히 주일에는 교회가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어떤 계기가 되어 뜨거워지거나 식지도 않은 신앙생활은 저의 삶의 자체였습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5년전 심장의 고장으로 생명이 위태했던 병중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증거입니다.

3. 안수집사로 피택 되었을 때의 처음 마음

안수집사로 피택 되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4. 다짐/기도제목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에 대한 창의적 생각과 행동으로, 맡겨진 직분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저의 다짐이고, 맡겨진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5. 마무리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까지 저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양성우 안수집사



강이 있던 자리

자양강을 쟁강이라고 불렀다.'쟁강'하고 읊조리면 얕은 물가 송사리를 쫓아가던 아이들이 떠오른다. 육십을 훌쩍 넘긴 사람들에게 그곳은 유년의 낙원이다. 달빛에 몸을 뒤채이던 물살의 유희와 햇살에 깔깔대던 물결의 꿈에 마음을 실었었다. 그 많던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해 질 녘에 슬그머니 강가로 마실 나오던 다슬기는 그 길로 아주 강을 벗어났을까? 알몸으로 첨벙거리던 아이들도 강을 떠났다. 기억 저편에 살갗을 태우던 햇살의 따가움만 남아있다.

강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잡목 사이로 맥없이 흘렀다. 강은 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맛비에 물길을 넓혀보려던 강바닥의 야심도 허망해졌다. 강바닥은 비를 붙들어 놓지 못했다. 빗물에 떠내려가는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다. 자양강은 물길을 붙잡아두지 못해 초라한 실개천으로 남았다. 사랑 떠난 자리에 남은 스산함처럼 잡초만 아우성친다.

글 **전경해 권사**



창의성 인성놀이 중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놀이

인생 2막에 만난 친구

공무원으로 30여년을 근무 하고 정년퇴임을 한지 2년여를 하는 일 없이 보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였지만 요즘 나이로는 청춘이라 불릴 나이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여하는데 별다른 준비 없이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실습을 하면 활동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대면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터넷 줌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고 40시간의 이론교육은 이수하였으나 10시간의 실습을 해야 최종 자격이 주어지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장애인 부모님들이 대면 실습을 꺼려 실습대상 장애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침 지인을 통해 활동지원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된 활동지원사를 소개 받게 되었고 장애인 부모님과 면담 후 실습 및 지원 업무를 인계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 가사활동 · 이동 지원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보건 복지부에서 사업을 관장합니다.

제가 만난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신체적으로는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친구로 30세가 넘은 청년입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실시하는 재활 프로그램인 자전거타기, 헬스, 수영 등을 비장애인 못지않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다만 인지능력이 4-5세 수준이고 기억력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방금 이야기한 것도 다시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언어를 단답식으로 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친구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에 무엇을 먹었냐고 물어보면 구체적 기억을 못해 그냥 맛있는 것 먹었다고 표현을 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 친구를 소개받고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는 했지만 막상 대면을 하고보니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이 됐습니다. 우선은 장애인 친구 성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 친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 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인들은 생각이 단순합니다. 비장애인처럼 자신과 주변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표현능력이 부족하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자기생각에 대한 고집이 센 편이며 자기물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활프로그램으로 주 1회 볼링장을 가는데 볼링을 치는 것 보다는 볼링공 굴리는 놀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처음 볼링레인을 지정해 주면 다음에 다시 가도 반드시 처음 지정해준 레인을 고집하고 다른 레인으로 데리고 가면 다시 처음 했던 레인이 자기 지정석인양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한 생수나 음료를 주면 마시고 난후 자기 것은 빈병이라도 꼭 챙겨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보면 스스로 생각을 통제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므로 함께하는 지도자가 그만 멈추라고 통제를 하지 않는 한 앞만 보고 무작정 계속 달려갑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이 항상 이것저것 다 챙겨주니 시키는 대로만 하는 습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 호칭을 통상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한 번은 보호자 대신 병원을 함께 간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주는 각종 영수증을 받아 선생님이 보관할 테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고 자기 가방에 넣습니다. 자기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하면서 지적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지원하고 있는 친구처럼 기억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 인지능력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어 끊임없이 혼자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장애인을 만날 수 있었고 개중에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 등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으나 스마트폰 전화가 오면 폴더를 열어 받는 것만 할 수 있는 생각수준이 4-5세 정도 지적수준을 가진 장애인이 대부분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친구들을 비장애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친구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그 장애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친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중 주 2회 수영을 하는 날이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수영복을 가지고 오지 않아 몇 번을 집에 다시 갔다 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안 가져왔나 물으면 매번 깜빡 했다는 대답이 돌아와서 다음부터 수영수업 전날에는 집에 내려주면서 수영복 꼭 가져오라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 했더니 이제는 수영복 이야기를 하면 집에 들어가서는 수영복부터 챙겨 놓는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봄 벚꽃이 만개하던 날 공지천 수변 꽃길 산책길을 갔습니다. 꽃길을 걷다가 라일락이 피어있기에 꽃향기를 맡아보라고 하고 무슨 향기가 나는가 물었더니 표현을 못하고 그냥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 화장품 냄새와 같지 않은가 다시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에 가서 똑같이 해도 마찬가지 반응이 오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보면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약간의 자극을 반복하다 보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계속 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곳 접해보지 않은 것들을 접할 수 있게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여기에 왔던 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왔었다면 누구하고 왔었나? 와서 무엇을 했는지 계속 연상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일종의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순하면서 순수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거짓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또한 행동 하나하나에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친구를 매일 만나며 친구와의 교감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인 부모님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조금

이라도 어제와 다른 모습이 보이면 부모님에게 집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 친구와 대화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얻었습니다.

나는 이친구와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가끔 마트에서 마실 음료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고르게 하고, 중간 중간 같이 다니며 있었던 상황을 부모님께 즉시 알려드림으로서 부모님도 시시 때때로 장애인친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안심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붙어 다니며 보호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계속 말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게하면 분명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활동지원 시간을 단순히 시간만 때우며 보내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자식 내 친구라 생각하고 이친구가 나를 만나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활동지원사의 진정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난 지 벌써 1년, 많은 일이 있었고 같이 다니면 나는 선생님이 좋다 선생님과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부모님으로부터도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고 많이 밝아졌고 활발해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열린사회 서비스센터에서 장애인 부모님께서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 일 하기를 잘했고 인생 2막에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납니다. 다만 하나님이 개개인의 역할을 달리 지정하셨을 뿐입니다. 지적 장애인처럼 스스로 생활하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있다면 도와준다는 의미 보다는 내가할 수 있는 부분을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조금 나눠주어 어려움 없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을 하면서 삭막한 세상에 순수함을 배우고 삶에 가치가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고 내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장애인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한걸음 떨어져 부족한 사람, 가까이하기에 뭔가 꺼림 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도 생각이 있고 가까이 함께할 때 비장애인인 내가 오히려 세상살이에 찌들어 잃어버린 순수함과 세상에 처음 나올 때의 맑고 깨끗한 영혼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친구를 진실한 친구로 생각하고 열심히 성심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장애인 친구를 매일 만나면서 하루하루 나 자신 인생 2막에 의미 있는 가치를 쌓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돌보고 있는 장애인친구도 변화하고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드라마가 종영되면서 엔딩 자막에 나오는 글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구에게 치우침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글 4교구 최수경집사



미래와 비전을 선포하는 초등부 친구들,,,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주일 아침에 설레이는 것은 문을 열고 초등부실로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예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미래와 비전을 선포하는 초등부는 11명의 교사와 37명의 어린이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요"(막 1:15)라는 표어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말씀을 교회에서, 삶에서 더 가까이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 교사경건회로 교사들이 찬송,말씀,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중창단 친구들이 모여서 찬양을 연습합니다. 문을 열고 예배실로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주보를 받고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든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간절히 두손 모아 기도할 때 교사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과 분반공부는 One Point로 또 한번 반별로 성경을 공부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웁니다. 초등부는 어린이들이 헌금기도를 하며 기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라이브로 대면, 비대면 함께 진행해오다가 7월부터는 대면예배로 전환하면서 37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 절기를 지키며 절기에 맞는 행사를 합니다. 최근에는 환경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후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풀과 나뭇잎을 이용해 손수건에 무늬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에코손수건을 만들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보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이 오면 아름다운 추억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해 명랑하게 솟아 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벼웁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말씀 배우러 가자" 이 노래를 부를때면 참 즐겁고 기뻤습니다. 북을 치고 찬양을 부르며 소박한 동네(지금의 하중도) 한바퀴를 다 돌아 옵니다. 3박4일 동안 진행되는데 끝나는 날은 늘 아쉬웠던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생각나시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후에 성경학교 노래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요 또 다음세대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여름성경학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가치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글 초등부 신미숙 목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름이다.
여름엔 무엇이 필요할까.
옷도 훌훌 벗어 던지고 싶다.

녹즙을 짠다.
녹색 물이 주르르 흐르다가 한 방울씩 똑똑 맑은 유리컵 속으로 떨어진다. 신선함 그대로다. 물론 소금이니 설탕이니 다른 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그 자체다. 녹즙을 보며 마시며 그동안 눈에 보이던 잎이나 줄기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잎이나 줄기는 사라졌지만 즙은 최선이다.

장식에 대하여 사전에서는 <그릇, 가구, 옷 등에 쇠붙이, 헝겊, 뿔 돌 따위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 다는 데 쓰는 꾸밈새, 어떤 장면이나 부분 따위를 인상 깊고 의의 있게 만듦> 이라고 설명한다.

장식은 너무 반짝이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내 보이면 사람이건 환경이건 아름다움이 천박함으로 바뀔 수 있다.

외국에서 잠시 살 때였다. 크리스마스 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빨간 산타할아버지 귀걸이를 한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백발의 할머니들,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을 꾸밈으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삶을 풍성하게 즐기는 것이었다.

젊은 날엔 세련되고 개성 있는 모습이 중요했다. 70대 중반인 지금도 나는 여전히 멋지고 싶다. 나이 들수록 신경을 안 쓰면 추레해지지만 요즘은 신경 써도 머리카락도 옷 입은 맵시도 영 폼이 안 나서 짜증스럽기도 하다.

한 번은 어떤 단톡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임양숙씨가 누구야?" "있잖아, 글 쓰는 할머니!" 젊은 사람들이 내가 멤버임을 깜박했는지 어떤 사람인

지 궁금해하는 카톡에 자기들끼리 나를 지칭한 말이 그대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 "맞아요! 머리 하얗고 등이 굽은 할머니요" 내가 침묵하자니 민망하여 인정하고 나섰더니 할머니라 지칭한 일에 예의 바르게 급히 사과했다. 난 전혀 감정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로 우린 나이의 노소를 벗어나 참된 구성원이 되었다. 사실 나는 나를 나타내는 가장 편하고 적합하고 좋은 말은 <글쓰는 할머니>다.

꽃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질지라도 피었던 순간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자랑한다. 비바람속에서 스스로 최선의 힘을 다해 핀 까닭이다. 인생도 잠깐 머물다 갈지라도 이 땅에서 살았던 사실만으로 가치 있다. 자신이 오롯이 담긴 인생을 찾아야 할 이유는 확실하다.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늙고 싶다고 생각한다.

장식은 필요 없다.
어떤 분의 명함처럼 작은 명함 가득 붙어 있는 장식들, 혹시라도 장식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닐지, 인생 구차하게 보이는 자랑거리들.
마지막 시간에도 자기의 벤츠 차를 자랑하고 명품백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 영정 사진으로, 잔뜩 멋을 부린 모습이나, 80 넘은 노인이면서 30대의 모습을 사용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짠하게 한다.

100세를 살다 가면 살만큼 살아서 여한이 없을까.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꿈이 있어서다. 사실 사람의 미래는 뻔하다. 잘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건데 건강하여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그것이 최고의 삶일 테다.

미래를 갖지 못하고 홀홀히 떠나는 젊은이를 보면 아프다. 그러나 짧은 일생이지만 바람 속에서, 나누었던 삶, 사랑, 기억들... 할 일을 다 하고 떠난다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린 무엇을 남기고 갈거나. 산다는건 매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분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그 가운데 분명 옥(玉)은 있지만.

사람이 자신을 아름답게 이끌 수 있고 자신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손에 쥔 것, 몸둥이에 붙인 것, 살아왔던 이력일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녹즙...
인생은 여름, 8월 태양 아래선 장식은 필요 없다.



글 임양숙 권사





신임교역자 오민준 목사

1. 간단한 자기소개(가족포함)와 약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5월에 청년부 담당으로 부임한 오민준 목사입니다.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주지혜 사모와 여섯 살 된 개구쟁이 아들 주원이가 있습니다.

여느 학생처럼 평범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협력하고 계셨던 해외 선교지로 유학을 권유하셨습니다. 교회의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큰 비전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기회였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Kyrgyzstan)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전문과정을 졸업했습니다.

2.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유학하며 보냈던 10여년의 시간은 언어 습득과 문화 적응 등 원활한 현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

르심에 즉각 순종했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 감사하며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 원하는 목회자 상과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은지?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공동체의 화합과 성숙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을 이어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고백한 사도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나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4. 존경하는 분이나 인생의 멘토가 되었던 분이 있으신가요?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해 당신의 목회 경험과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면 엄하게 꾸짖기도 하셨지만, 항상 그 후에는 따뜻하게 격려해주시며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사역에 있어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여러 목회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제 목회와 목양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춘천동부교회 이임 소식을 전할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며, 헤어짐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모습을 본받으며 누군가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보탬이 되는 멘토가 되길 소망합니다.

5. 동부교회를 택하신 이유와 성도와 교회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청년부 사역자 청빙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동부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한호 위임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임 후에 제가 본 동부교회는 찬양에 열정이 가득하며, 뜨거운 중보의 기도, 감동과 은혜가 동시에 마음을 울리는 위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묵묵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은 목회자인 제게도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부디아코니아 산하 기관들을 통해 사회의 약자와 어린이들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제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분명한 역할과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6. 앞으로의 목회 비전과 특별한 목회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의 목회 비전은 선교입니다.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선교지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이웃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는 늘 고민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동부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김한호 위임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향후 저의 선교와 목회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글 오민준 목사





신임교역자 정 훈 목사

1. 간단한 자기소개(가족포함)와 약력을 부탁드립니다.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고 호남신학대학교와 동대학 신학대학원(M.div),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기독교 상담학(M.A)을 공부하였습니다. 신대원 재학 중에 아내(한계화)와 가정을 이뤘고 군복무 중인 아들 찬영과 대학에 다니고 있는 딸 찬주, 막내 딸 찬희가 있습니다. 광주 광북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하여 고창중앙교회, 광주동성교회, 여수중앙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2.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어릴 적 교회학교에 결석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며 매주일 예배했습니다. 가까운 친인척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몰랐고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만난 5명의 친구들이 서로의 교회를 순회하며 연합 찬양집회를 기획하고 예배하면서 교단은 다르지만 목사가 되어 만나자 약속했었고 지금 4명의 친구들이 목회자가 되어 각자의 사역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신학교 진학을 결심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지키며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3. 원하는 목회자 상과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은지?

성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실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달란트는 없지만 맡겨진 일들에 대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함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끌어가는 리더보다는 함께 걷고 함께 뛰는 동역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4. 존경하는 분이나 인생의 멘토가 되었던 분이 있으신가요?

모교회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던 집사님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사셨지만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쉽게 이해하도록 눈높이에 맞춰 성경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셨던 모습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60세 가까운 연세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작은 시골 교회 담임목사님으로 여전히 밝고 순수한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섬기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 제자 목사는 잘 지내고 있냐며 늘 먼저 전화주시는 모습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보다 저에게는 존경스럽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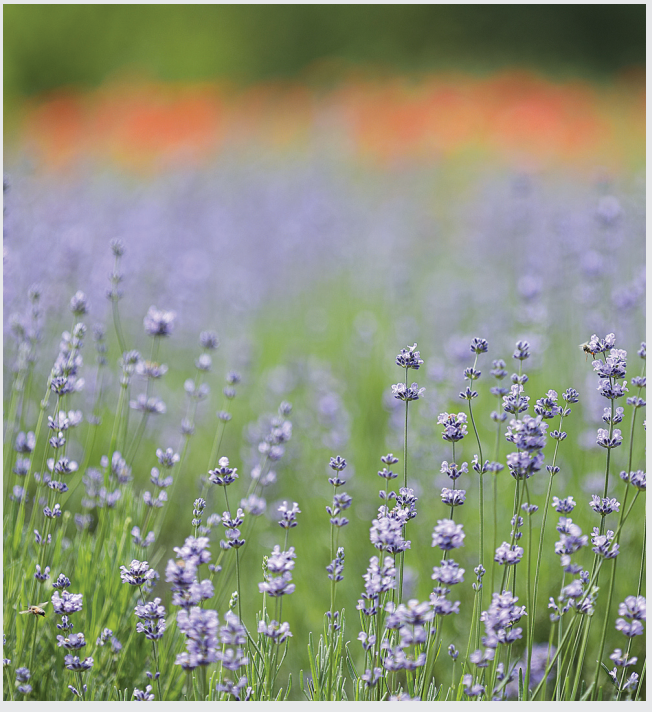
5. 동부교회를 택하신 이유와 성도와 교회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동부교회에서 사역한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새벽기도회 때 찬양대와 기관들이 찬양을 드리고 교회학교학생들이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성찬과 온토새를 통해 새벽에도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많은 봉사자와 섬김의 모습,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고 작은 곳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역과 농어촌을 돌아보며 함께 일하는 사역의 현장들은 목회자로서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6. 앞으로의 목회 비전과 특별한 목회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선교를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현지에 나가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시대에 맞는 선교의 모습을 찾고 싶고 교회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들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지역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며 제가 섬길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배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춘천동부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하겠습니다.

글 정 훈 목사





이사오세 4행시 공모전~~~

이 제는 나올 때도 됐는데
사 람들이 마음껏 모임해도 되는데
오 늘은 동부교회로
세 명 네명 손잡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근영

이 렇게 좋은 교회
사 방으로 둘러봐도
오 디에도 없답니다
세 번만 나와보시면 압니다 ㅋㅋㅋ

박시인

이 렇게 참 좋은날
사 랑하는 가족과
오 랫만에 나올 이웃에게
세 상을 사랑 하셔서 이땅에 오신(복음) 예수님말씀
잔치에 모두 동참 하기를 간절한 맘으로 기도 합니다.

이윤숙

이 제껏 기다렸습니다
사 랑하는 동부교인들의 웃는모습을
오 늘부터 볼수있나요
세 상속으로 가지말고 오세요 동부교회로
12일 주일에~~

홍종성

이 런거 말고, 참된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
사 실 이거 비밀인데
오 직 춘천동부교회 2453 예배에서만 얻을수 있대
세 상에! 우리 같이 은혜받으러가자!

최진흥

이 렇게 좋은 날,
사 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예배당)에 모여
오 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니
세 상에 창궐한 코로나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는구나~

신경희

이 런교회를 아시나요?
사 랑의 마음을 품고
오 랫동안 지역사회를 섬겨온
세 상을 이롭게하는 우리교회

이선미

이 사오세에는
사 랑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 셔서
세 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맛보세요

김지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사 랑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
오 직 예수만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
세 상 속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

박하은

이 것보세요!!! 목사님~!!
사 실... 새벽기도 힘들어요
오 늘 또 결심하지만.....
세 우잠을 잡니다.....

정광수

이 쪽으로 갈까유~ 저쪽으로 갈까유 하나님?
사 방팔방 어디로 갈지 당최 모르겠슈
오 른쪽으로 갈까유~ 왼쪽으로 갈까유 예수님?
세 로로 갈까유~ 가로로 갈까유 성령님? 예?.. 모르지만 따라 가보렵니다~

정광수

이 렇게 살아 갈래요!
사 랑과 섬김으로
오 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 상에 복된 소식을 전할 거예요!

곽지민

이 외에도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떼파파 이야기

아이 셋을 키우는 육아 전쟁 속에서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한 초보 아빠의 소소한 단상을 적어봤습니다.



Up? but Down!

부모가 되기 전, '층간 소음' 이슈는 제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인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아이 셋 키우려면 무조건 단독 주택으로 가거나, 아파트 1층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충고해주었지만 별로 귀 담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새로 아랫집이 이사 오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체중이 점차 늘어날수록 이 문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소음 매트도 깔고,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이사' 외에는 없었습니다. '멀쩡한 내 집을 놔두고, 굳이 힘들게 이사를 가야하다니...'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에게 늘 화내는 내 모습도 싫고, 늘 혼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모의 타 들어가는 속도 모르고,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아빠! 우리도 할머니 집처럼 높은 데에서 살자."

"에이, 높은데 살면 위험해. 장난치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나중에 1층으로 이사 가면 너희들 마음껏 뛰어도 아빠가 진짜 혼내지 않을게."

몇 달 전부터, 1층이 좋다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설득 중입니다.

사실 전망을 보나, 채광을 보나 고층이 좋긴 좋죠... 하지만 삶은 늘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없고, 현실과 이상은 종종 대립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이상은 현실에 짓눌려진다는 비극을, 미취학 꼬맹이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요.

7살 둘째 녀석은 요즘 병원 놀이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매일 장난감으로 주사를 가족들에게 놓는데, 아파 죽겠습니다. ㅠㅠ 이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예전보다 훨씬 병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빠 나 나중에 크면 의사 될래."

"응, 민의는 의사하면 좋겠다(야 의사 되려면, 중고등학교 전교 1등,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은 나와야 하는데. 넌 그다지 공부 안 좋아하잖아.)"

고등학교 14년 차 교사인 못난 아빠는 '의사'라는 말에, 의대를 가기 위한 현실적 조건들을 의식의 흐름 속에서 긴 영수증 종이처럼 떠올립니다. 문득 아이들의 이상을 깨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 시켜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결국 펜션 뺨치는 뷰 좋은 단독 주택이 답인가요? 얘들아~ 그러기에는 엄마 아빠는 돈이 많지 않구나. 미안하다잉!!

손흥민은 아무나 되나

강원도의 자랑 손흥민이 센세이션, 아니 손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아들 있는 집에서는 유소년 축구교실 보내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에게 운동을 잘 하는 것이 자존감 향상과 대인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에, 코시국만 끝나면 바로 쌍둥이들을 축구교실에 보내려고 했죠. 그러던 중 일가족 확진을 겪고, 격리해제가 되자 마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축구 교실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역시 예체능은 타고나는 것인지, 일말의 기대를 품었건만 첫 수업 참관에서 우리 아이들의 몸 개그를 보며, 대를 거쳐 내려오는 저의 비루한 운동신경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아이들을 독려하고 잘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줬죠.



겨우 4번 정도 수업을 들었을까? 갑자기 감독님이 이번 주 양구에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리는데, 참가해보라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처음 가보는 유소년 축구대회라 큰 흥미를 느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흔쾌히 참가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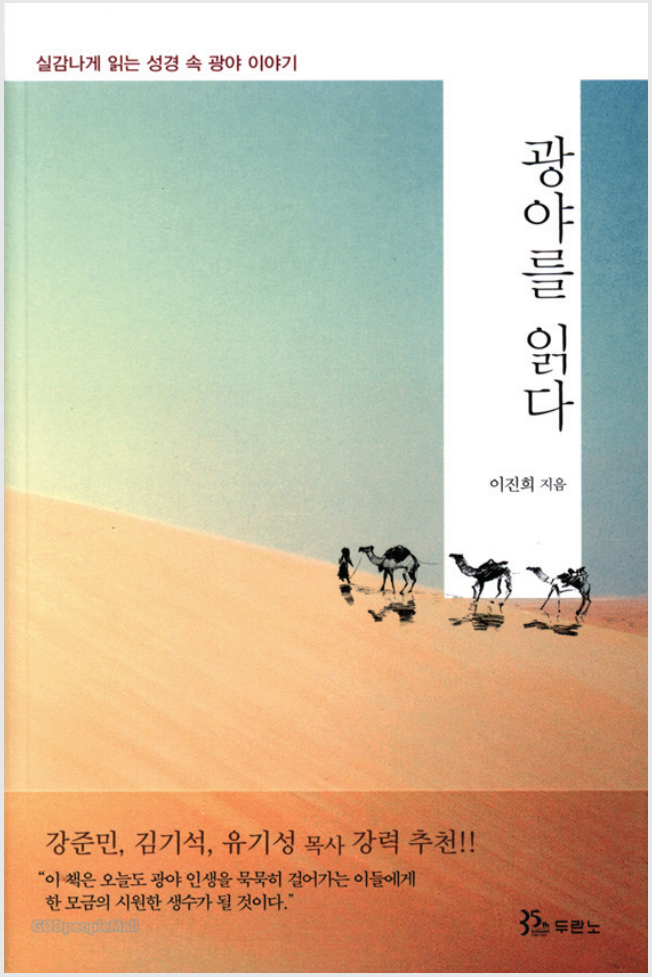
대회 하루 전날, 아이들과 대회에서 1등을 할거라는 등, 몇 골을 넣을 거냐는 등 기대에 부푼 대화를 했습니다만, 막상 경기를 가보니...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토너먼트 4경기 4패, 4경기 중 1골도 넣지 못하고, 매 경기마다 5실점 이상의 대패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팀은 기본적으로 타 팀에 비해 선수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초보자였기 때문에 기량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룰도 익히지 못해, 허둥지둥 거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것을 보며 웃는 주변 관중들의 모습들, 우리 팀은 이번 대회에서 웃음을 담당하는 분위기 메이커로는 우승탐이 확실했습니다. ㅎㅎ 저는 솔직히 창피하지도 않았고, 그저 아이들이 귀엽고 대견했습니다. 어차피 축구선수로 키울 것도 아닌데요 뭘. 그런데 모든 부모가 저와 같은 생각과 마음은 아니었나 봅니다.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희노애락을 느끼는 부모들, 미취학 아이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심판과의 판정시비로 아이들 앞에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감독들을 보니까 확실히 저와 우리 팀 감독님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이들 축구하는 건데 뭘 그리 심각하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문득 이 경쟁의 장이 '축구'가 아니라 다른 것(가령 '입시')이었다면? 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나도 과연 다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주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결과에 초탈한 척(?)한 것이겠죠.

4전 4패의 공포의 외인구단! 팀원들은 모든 경기를 마치고 모두에게 주는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메달을 목에 걸고 웃고 있는 쌍둥이들을 보며, 이 웃음을 19살이 되어서도 잃지 않도록, 결과 못지 않게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빠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어느 화창한 토요일이었답니다.

글 김지원 집사

추천도서



광야를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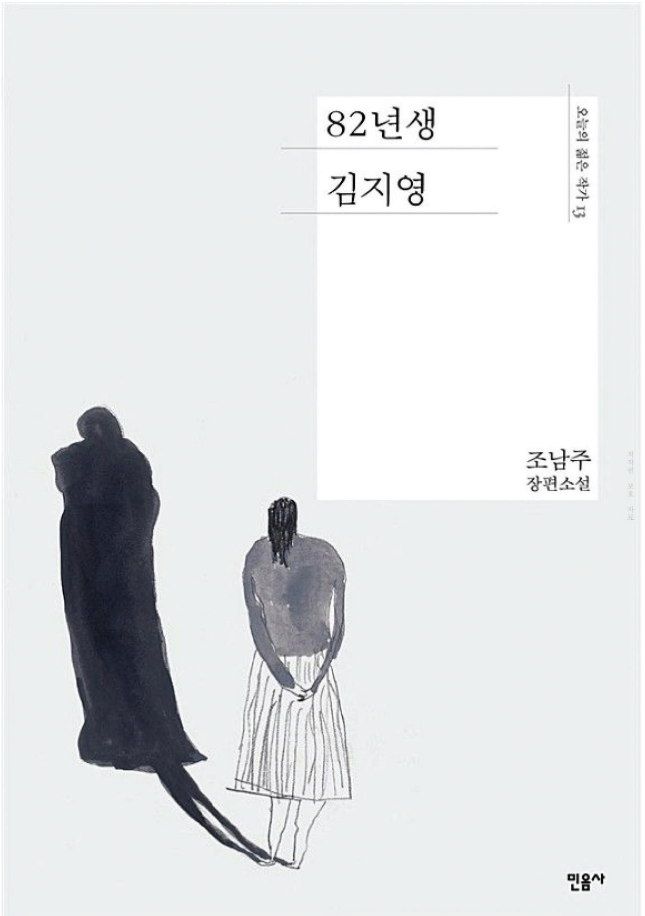
인생의 광야,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진희 지음
도서출판 두란노

성경은 광야이야기로 가득하다. 우리의 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암갈색의 빛바랜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 굳게 닫힌 광야의 자물쇠를 열라. 당신의 광야가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 그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건널 것인가? 인생을 흔히 광야로 비유한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힘겹고, 위태롭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광야의 여정이라도 누군가는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으로, 능숙하게 임하는 이들이 있다. 이 책은 광야 전문가 이진희 목사가 수 차례에 걸쳐 직접 광야를 경험하고 답사하며 얻은 나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광야 순례자들을 가이드 하고 있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광야에 대해 광야, 인생의 광야, 실제 하는 광야를 대비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조언은 길을 잃고 지친 이들뿐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이들까지도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칠 이정표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생각된다. 특별히 신구약을 잇는 역사적, 지리적, 성경적 해석은 읽는 이들에게 광야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다.

저자소개-이진희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빗대어 말할 때가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버티기 힘겨운 까닭일 것이다. 이 책은 광야 전문가인 저자가 수년에 걸쳐 세계 곳곳에 있는 광야들을 직접 탐방하며 경험한 것들을 성경에 입각하여 풀어낸 광야 이야기이다. 저자는 1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광야를 설명한다. 양, 나침반, 오아시스, 낙타 등 광야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과 베두인, 이슬, 싯딤나무, 백합화 등 다소 낯선 것들을 한데 모아 목사로서, 또 광야 전문가로서의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견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야에 대한 정보와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력이 광야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탐독자들에게나, 삶의 힘겨운 고비 속에 신음하며 길을 찾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시원한 청량수가 되길 바란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지음
믿음사

이 책의 주인공 김지영은 82년생이지만 2016년에 세상에 모습을 보였다.
김지영의 삶과 그 어머니 오미숙 여사의 삶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만 보고 살았음을 고백한다.
회개하면서 다시 잘못을 되풀이 하는 삶처럼 고백만 하는 건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나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생각과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게 불편해서 모른 체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오랜 세월 굳어 있는 생활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이놈의 세상을 한탄한다.
겨우 허난설헌 시절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위안 받는다.

그러나 지금도 사회 곳곳에선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본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도, 딸도 서로 불행하다. 세상이 힘들다.
우린 작은 것들을 바꾸며 함께 힘을 내어 백지장을 맞들 듯 남녀가 창조 되었던 창세기의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결국은 힘이 있는 쪽이 지배하지 않고 평등하게 배려하고 배려받는 당연함이 그립다.

동부소식

디아코니아 단신

2022 디아코니아학교 1단계 20기 교육

디아코니아학교 1단계 20기가 지난 3월 6일 주일, 30여명의 교육생과 더불어 4월 16일 토요일, 수료식까지의 귀한 교육의 여정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열심과 성실로 임한 교육생들에게 박수를 전합니다.



2022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2022년도 정기총회

2022년도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정기총회가 3월 12일(토요일) 춘천동부교회 2층 목양실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산하 법인인 (사)동부디아코니아를 통해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춘천동부교회 쓰임받도록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 디아코니아 장학금 전달식

2022년 디아코니아 장학금 수여식이 4월 3일 저녁찬양예배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3명의 장학생이 선발된 가운데 대면으로 진행된 본 수여식은 다음세대, 목회자자녀, 음악전공자 부문 각 1인을 대표로 하여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서 교회가 지역사회, 특별히 강원도 출신 다음세대를 섬기는 일에 소홀함 없이 섬길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특별 장학헌금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2 동부디아코니아 산하기관 연합헌신예배

2022년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산하기관 연합헌신예배가 5월 15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법인 임원진 및 법인 산하 4개 시설 직원 60여명과 법인이사 심우섭장로님의 예배인도, 박완주 장로님(상임이사)의 대표기도, 허남석 장로님(법인감사)의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광양대광교회를 섬기시는 신정 목사님의 섬김을 위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 및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며 도전과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아코니아 2단계 11기 교육

디아코니아학교 2단계 11기 교육이 5월 22일 주일 개강하여 7월 1일 금요일 꿈의 땅, 7월 2일 토요일, 수료식까지의 귀한 교육의 여정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 교육 심화 과정인 2단계 과정임에도 30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매 주 김한호 위임목사님의 귀한 교육을 경청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22 환경주일 디아코니아예배

2022년 6월 5일(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켰습니다. 김한호 위임목사님의 '예배와 환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위해 회복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Go Green 캠페인(녹색 옷, 녹색 리본)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 나갑시다.



디아코니아학교 2단계 11기 동부디아코니아 기관 탐방

디아코니아학교 2단계 11기 교육생 일동은 6월 16일 목요일 우리 교회 산하 법인 (사)동부디아코니아 기관인 춘천시 남부노인복지관과 퇴계꿈자람나눔터를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선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장과 직원분들을 통해 소개를 받으며,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귀한 대사회적 섬김 사역을 위해 알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25 발발 72주년 참전용사와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예배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25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디아코니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줄어가는 참전 용사분들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 해는 1분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 농촌교회와 함께 드리는 찾아가는 예배

022년 농촌교회와 함께 드리는 찾아가는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서상교회(1교구, 청년부), 횡성영락교회(2교구), 예사랑제일교회(3교구), 월조전교회(4교구), 함백낙원교회(5교구)로 총 5개 농촌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배부 단신

총여전도회 주관 3.1절 기념예배 - 재의 수요일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사순절이 3월 2일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따라가며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참회하며 재를 바르는 날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말씀으로 겸손을 새기며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부소식

토요새벽성찬

3월 26(토) 토요새벽성찬이 시행되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토요새벽성찬이 시행됩니다.



총남선교회 헌신예배

3월 27일(주일) 저녁찬양예배는 총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강사는 상도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박봉수 목사님을 모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총남선교회 회원들이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온가족 토요새벽기도회

온 가족 토요 새벽기도회가 4월 2일 토요일 오전 5시 25분에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온 가족 토요 새벽기도회는 다음세대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가족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자녀 세대에게 항존직분자들이 찾아가서 중보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 토요 새벽기도회는 온 성도 예배의 회복과 가정의 신앙 대잇기와 다음세대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022 부활의 아침을 경건과 거룩함으로 맞이하기 위한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4월 11일 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물들이다."의 주제로 드려진 사순절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움츠려든 몸과 영혼에 회복의 도전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감사예배가 4월 17일 주일 거행 되었습니다. 특별히 2부예배는 '장애인주일 디아코니아 예배'와 더불어 드려졌으며 3부예배 때는 부활주일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금 번 부활주일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두알씩 친환경 포장 된 유정란을 예수부활을 기념하여 나누었습니다.



교회 창립기념 주일

교회창립기념주일 및 어린이주일예배가 5월 첫 주일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교회의 83번째 생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유아세례식(3부예배)이 거행되었습니다. 2명의 아기들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다짐을 바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세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회 창립 83주년 기념 원로 장로 추대 및 항존직 은퇴 및 임직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로장로 추대 2명
안수집사 1명, 8명의 권사님이 은퇴하셨으며
장로 4명, 안수집사 13명, 권사 18명, 명예권사 2명이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토요새벽기도회

'온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5월 7일(토) 새벽 5시 25분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여두 가정의 감동이 있는 특송과 위임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청년들과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중보의 시간이었습니다.
온가족 토요새벽기도회를 통해 동부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 어버이주일

2022년 어버이주일 예배가 8일(주일) 1,2,3부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위임목사님의 '리스바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공경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었으며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 존경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했습니다.



금은밤(금요일의 은혜로운 밤) - 임직자와 함께하는 금은밤

5월 13일(금), 올해 임직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명과 헌신을 결단하는 임직자분들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으며, 김한호 위임목사님의 '성령과 전도'(행1:8) 설교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이 한국교회를 되살리기 위한 부흥의 불씨가 되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동부소식

종려주일 예배

월 10일 주일은 사순절 여섯번째 주일인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전쟁의 포화속에서 생명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가 상실되어버린 이 시대에 "생명과 평화의 성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화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성찬식이 주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허락하신 생명과 평화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를 넘어 전세계와 세대 가운데 전해지는 삶을 사는 동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토요새벽 성찬 예식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28일) 새벽에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며 은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 이사오세(2453) 예배

춘천동부교회 온 성도와 온 가족이 함께 이사오세(2453)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 해 이사오세 예배는 <스.우.파 - 지저스 우리의 파워!>라는 주제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다시 한번 신앙과 일상의 회복을 외치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멋진 춤 퍼포먼스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루었으며,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은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금은밤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 - 청년부 주관

6월 17일(금) 저녁 8시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을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특송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찬양과 같이 온 세대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결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환경주일 (생명과 더불어 녹생희망으로!)

2022년 6월 5일(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켰습니다. 김한호 위임목사님의 '예배와 환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위해 회복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Go Green 캠페인(녹색옷, 녹색 리본)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 나갑시다.





2022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총여전도회 주관)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총여전도회 주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순서마다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 단신

유아세례식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유아세례식(3부예배)이 거행되었습니다. 2명의 아기들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다짐을 바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세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입교예식

5월 22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입교예식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총 3명의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자신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춘천동부교회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입교한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 지도록 기도와 응원으로 축복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diakonia)는 그리스어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으로 영혼구원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막10:45)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섬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춘천동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 기고를 받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에서는 동부교회내 뿐 아니라 외부의 좋은 글도 받아 게재 합니다.
시, 수필, 꽁트, 신앙간증, 평론, 정보소개 등 종류와 상관없으며 내용은 반드시
기독교(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반기독교적이거나 특정 의도의 글 또는 상업적 목적의 글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과 일반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이인호 010-6270-1744 / lihbingo@hanmail.net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표지사진 : 용화산 계곡의 여름 (이인호 집사)

2022년 통권 80호

창간 2001년 5월 6일
발행일 2022년 7월 24일
발행처 춘천동부교회
발행인 김한호
담당교역자 정 훈
편집위원장 박경해
부위원장 이인호
사진 전경해
편집위원 임양숙, 정현숙, 김지원, 이예림, 박주은, 윤예영, 이정민

주소 (24353)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TEL 033)252-5959 **FAX** 033)241-1999
홈페이지 http://chdongbu.or.kr

춘천동부교회
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